



2023.05.22.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9호

#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쉼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9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5월 22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쉐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 CONTENTS

1. 좋은 사회란?	05
2. 좋은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	07
3. 쉐림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향	10
4. 좋은 사회 벤치마킹과 시사점	13
5.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안	18

## 1. 좋은 사회란?

-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기회가 많아야 한다.
- 기회의 제공은 행복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제1요건이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 2. 좋은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

- 우리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쏠림사회를 벗어나, 각자가 다원화된 성공기준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를 추구하는 개성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쏠림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향

-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 등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쏠림현상들이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다.
- 국부론과 자유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 4. 좋은 사회 벤치마킹과 시사점

- 싱가포르: 시민과의 미래대화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포함한 <싱가포르 12대 선호미래상>을 확립함으로써 좋은 사회의 목표 이미지를 만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핀란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고 낙오자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핀란드의 교육시스템도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가 배울 점이다.
- 대한민국: 2021년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중장기야전대위위원회에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정립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핵심가치로서 자율과 분권, 다원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 우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5.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안

-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하자: 각자가 자신에 맞는 다원화된 성공기준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5천만명 국민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5천만개의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
-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을 시도하자: 현행 교사들에 추가해서 학업코치와 재능코치를 대규모로 선발해서 학업코칭과 함께 학생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키워주고 가치있는 일자리 기회도 창출하자.
-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보편적 복지와 병행하여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선별적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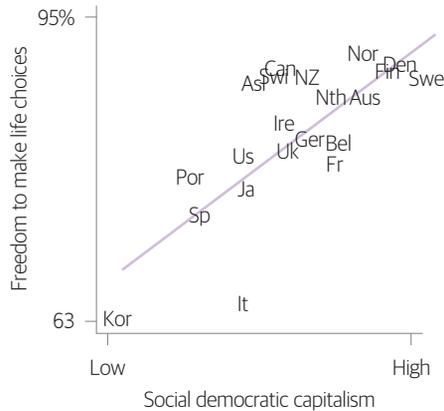
# 1. 좋은 사회란?

좋은 사회(Good Society)란 어떤 사회일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좋은 사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싶다.

좋은 사회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 캘리포니아대 레인 켄워시(Lane Kenworthy) 교수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 공감이가는 단순명료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 속의 기회에 대한 국가 간 인식차: 북구유럽 vs 한국

## Opportunity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share responding "satisfied" to the question "Are you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your freedom to choose what you do with your life?" 2005-2019. Data source: Gallup World Poll, via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20*, online appendix.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see the first chart above. "Asl" is Austria. The line is a linear regression line. The correlation +.72.

\* 출처: Lane Kenworthy,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KDI 국제컨퍼런스, 2021. 10. 7.

레인 켄워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좋은 사회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즉 행복 및 행복의 주요조건인 기회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둘 중 '행복'은 개개인 구성원들이 느끼는 결과적인 조건으로,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기회'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관리도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회가 많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켄워시 교수에 의하면, 북구유럽 국가들의 국민은 기회가 많다고 느꼈고, 그에 비례해서 행복과 사회통합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이는 다시 행복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런 점에서 기회의 제공은 행복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제1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어떠할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요약해보고, 이에 기초해서 현재부터 미래에 걸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여정을 떠나야 할지 그 기본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 2. 좋은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

### 1. 과거에서 현재까지: 정체사회에서 쏠림사회로의 전환

먼저 좋은 사회를 규정하는 제1요건인 '기회'라는 관점에서 약 500여년간 지속된 조선시대(1392~1910)를 바라보면, 조선은 지극히 일부사회계층에만 기회가 허용된 '기회의 정체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신분이 정해져 있었다. 사회의 상류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과거시험도 양반 자제에 한해 응시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기회 폐쇄적인 정체사회였지만,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이에 순응하면서 수백년을 살아왔다.

세종, 정조 등의 시대에 일시적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개방되기도 하였지만,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500년을 넘게 기회의 정체시대가 계속되었다. 켄워시 교수가 말한 좋은 사회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회가 너무 적었던 조선은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와 일제 식민시대(1910-1945)를 거쳐 1950년대말에 이르기까지도 한국 사회는 기회의 수가 많지 않은 기회 정체사회가 계속되어왔다.

이렇게 오랜기간 정체되어 왔던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기회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회로 급변하였다.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출을 진흥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전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비례해서 높아졌다. 우리 사회에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지난 60여년간의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좋은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기회 정체사회에서 기회 쏠림사회로의 변화

1950년대 이전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시대	1990년대 이후 저성장시대
기회 정체사회	기회 팽창사회	기회 쏠림사회

그런데 점차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의 수도 정체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등과 같은 제한된 수의 동일한 기회를 같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회 축소사회'이자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특정 기회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모두가 그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와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 2. 현재부터 미래로: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의 전환

물론, 쏠림사회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오늘을 만드는 데 쏠림사회 성향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단일화된 단순명확한 성공기준, 경제성장예의 집중, 국가주도 등을 통해서 발전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성장과 발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의 전환 방향

쏘림사회	→	개성사회
단일화된 성공기준	→	다원화된 성공기준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	사회성장과 내적 성숙
국가, 조직, 집단의 발전 중시	→	개인의 꿈, 재능, 가치관, 자율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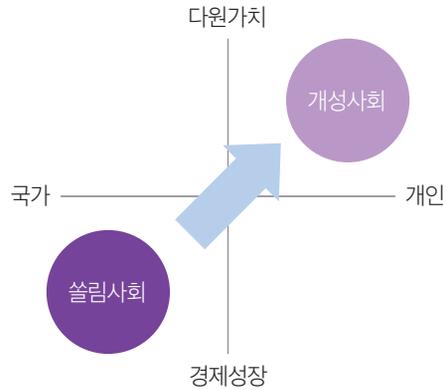
첫째,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단일화된 성공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다원화된 성공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이는 다시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핵심 촉매가 된다. 특정 개인을 예로 들면, 공부는 못해도 잘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 학교 성적과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꿈과 재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경제성장만이 성장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이제는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적 질적 성장, 공동체 성장, 정신적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함께 추구할 때가 왔다. 그런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다시 더 나은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 조직, 집단을 우선시하던 시대를 넘어서, 각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 각자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나갈 때, 그 개개인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창출하는 기회와 지속성장 가능성도 비례해서 커질 것이다.

미래로의 패러다임 변화도 개성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치 중심에서 환경가치와 사회가치의 중시, 수도권 집중사회에서 개성있는 지역발전 도모, 중앙집권사회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전환,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 확산 등이 개성사회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가치관 변화, 개인의 행복추구와 개인화의 시대 등의 메가트렌드적 시대변화도 유연하고 열린 개성사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4> 쓸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의 전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풀어나가는 비밀의 열쇠는 쓸림사회의 탈출에 있다. 단일화된 성공기준을 넘어 다원화된 성공기준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성장, 공동체 성장, 정신적 성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국가와 조직을 우선시하던 데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존재가치, 꿈과 재능, 자유와 자율을 적극 지원할 때다.

쓸림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가져다준다. 불만과 갈등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각자가 자기의 개성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삶을 추구하는 분산과 균형의 사회, 개성사회가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과 지속성장을 보장해준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달려왔던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지만, 이제는 불균형과 불평등의 쓸림사회를 넘어 분산과 균형의 개성사회를 향해 가야 한다.

### 3. 쉼림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향

#### 1. 쉼림사회 현황

우리 사회의 쉼림현상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쉼림, 직업선택의 쉼림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쉼림현상이다. 전 국토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600여만명이 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현재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소멸 고위험지역도 2017년 12곳에서 2047년에는 157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대학 전공선택의 쉼림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지식중심의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고, 거의 모든 초중고 교육은 대학입시로 통한다. 대학입시와 무관하게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다양성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에서의 전공선택도 마찬가지다. 각 개인의 특성과 선호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수입과 직업안정성을 고려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최상위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제1지망 분야는 의과대학이다.

대학 졸업 이후의 직업선택도 쉼림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쉼린다. 이들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많다. 취업 경쟁률이 100:1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100명 중 1명이 이러한 기관들의 취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99명은 실패를 맞보는 취업쉼림이 현재의 우리 사회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의 쉼림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뭐든지 좋다는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확 쉼리는 경향이 있다. 음식, 취미, 뷰티, 여행, 투자, 부동산, ... 등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쉼림현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 2. 쓸림사회의 이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극단적인 형태의 쓸림사회가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성공기준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하고 시험성적이 좋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 학업성적 이외에 자신이 가진 다른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학업성적이 좋은 극히 일부의 학생만 인정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오로지 성적만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쓸림사회로 만든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다.

둘째는, 오랫동안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찢어진 가난 속에서 지난 60여년간 개인과 사회의 지상목표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 개인도 국가도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다른 목표를 추구할 정신적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에는 끝이 없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더 좋은 차를 몰고 싶어진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 결과물의 하나가 지금의 쓸림사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개인보다는 집단, 조직, 국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 목표는 정부와 소수의 엘리트집단이 주도해서 만들어왔다.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초점을 두다 보니, 개인 차원까지 고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연히 조직과 집단의 논리가 개인의 존재가치, 개인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했다. 그 결과, 개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이 흘렀다.

## 3. 쓸림사회를 해결하는 기본방향

수십년간 고착되어 온 대한민국의 쓸림사회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를 뒤흔들만한 특별한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쓸림사회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틀림없다. 쓸림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회발전을 논하고 있는 인류의 영원한 고전 두 권에서 쓸림사회를 탈출하는 해법을 발견해보고자 하였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출판한 <국부론>과,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출간한 <자유론>이 그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분업과 전문화에 있다'고 일갈했다. 인간은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일을 전문화하는 대신, 나머지는 타인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주장은 경제를 넘어 사회전체의 발전에 관한 기본원리를 제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통찰을 25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해보면,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세상은 더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쏠림사회가 되어서는 결코 지속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쏠림사회를 넘어 각자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해야 개인도 사회도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 스미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도 이미 160여년 전에 저술한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쏠림사회의 폐해를 경계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다.' 당시의 영국도 쏠림사회의 경향이 강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해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 ...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아담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이 <국부론>과 <자유론>에서 각각 말한 위의 내용은 실은 동일하다. 쏠림사회를 넘어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똑같이 역설하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 4. 좋은 사회 벤치마킹과 시사점

### 1. 시민이 함께 만든 싱가포르 선호미래상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특히, 좋은 사회를 향한 싱가포르의 사회적 대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튼튼한 방식의 국가전략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온 대표적인 나라의 하나다. 그러면서도 싱가포르는 우리와는 크게 다른 국가전략 접근법도 함께 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 국민과의 미래 대화’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부터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싱가포르 시민들이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를 묻는 ‘우리 싱가포르 대화(Our Singapore Conversation; OSC)’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013년초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 4만7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싱가포르의 선호미래상 만들기 활동은 지속적인 진화를 거쳐 현재는 SGFuture(싱가포르미래)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미래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이러한 사회적 대화 활동들을 통해,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지향하는 12대 싱가포르 미래상을 정립하였다. 싱가포르 시민들이 만든 12개의 싱가포르 미래상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좋은 사회, 개성사회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12개 선호미래상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 누구나 품위있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 약자를 돌보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 가치기반 사회 등은 이 글에서 제안하는 좋은 사회를 이루는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민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국가 미래상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상을 만들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좋은 사회의 목표 이미지를 만들고, 정부와 시민이 협력해서 이런 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더 없이 좋은 경험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사회적 대화 노력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시민이 함께 만든 싱가포르의 12대 선호미래상

1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
2	더 충실하고 만족스런 삶이 있는 나라
3	강하고 활력있는 경제
4	튼튼하고 건강한 가족
5	적정한 주거환경
6	누구나 품위있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
7	약자를 돌보는 사회
8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
9	싱가포르인을 위한 나라
10	정부와 국민이 더 협력하는 사회
11	가치기반 사회
12	역량있고 믿음만한 정부를 가진 나라

1	A Society with Diverse Definitions of Success
2	A Singapore with a More Fulfilling Pace of Life
3	A Singapore with a Strong and Vibrant Economy
4	A Society with Strong Families
5	A Singapore that is Affordable to Live in
6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Age with Dignity
7	A Society That Takes Care of the Disadvantaged
8	A Society with a Greater Sense of Togetherness
9	A Singapore for Singaporeans
10	A Society where Government and the People Have a More Collaborative Relationship
11	A Society Anchored in Values
12	A Singapore with a Competent and Trustworthy Government

\* 출처: <https://www.reach.gov.sg/Road/Our-SG-Conversation>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2023년 3월부터 ‘부산시민과의 미래대화’를 시작하였다. 부산시민 60명을 모집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다가올 2050년의 미래사회를 전망해보고 선호미래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선호미래상과 시민의견은 부산시가 수립 중인 ‘2050 부산시 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원하는 좋은 사회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낙오자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핀란드의 교육시스템

좋은 사회는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려면 특히, 뒤처진 자와 낙오자가 없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뒤처진 자와 낙오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가장 큰 나라의 하나로 핀란드를 들 수 있다. 특히,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은 낙오자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소프트적 사회인프라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에서 지난 수십년간 일관되게 지켜져오는 제1의 교육이념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이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핀란드의 의무교육시스템인 9년제 종합학교에서 예외없이 철저히 실천되고 있다.

1968년 핀란드 의회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지와 부모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기본교육이자 의무교육을 9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켜 9년제 종합학교를 탄생시켰다. 이 9년제 종합학교에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특정 과목에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가 할당되어 특별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뒤처진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와 배려를 제공해서 낙오자를 방지하는 교육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회적 자산이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로 대표되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핀란드와 같은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핀란드의 오랜 교육철학에도 나타나 있듯이, 핀란드가 견지하는 국가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낙오하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핀란드는 이 원칙에 따라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각자 다른 재능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다. 앞서 소개한 ‘국민과의 미래 대화’를 통해 싱가포르가 정립한 국가 미래상 중의 하나인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현해오고 있는 것이다.

## 3. 좋은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국민선호와 미래전망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국민선호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의 시민 502명이 숙의토론을 거쳐 자신과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도전분배사회’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유형으로 선택되었다. 도전분배사회는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분배와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사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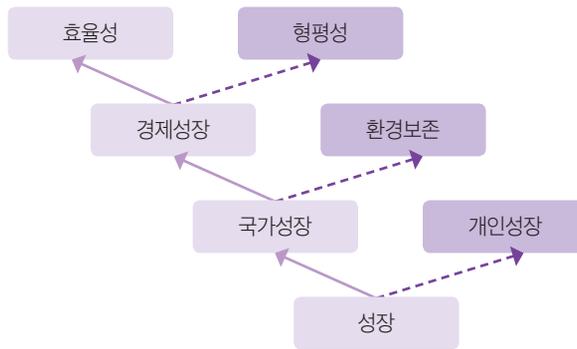
<그림 6> 미래사회 선호유형에 관한 국민선호 조사결과

	미래중심(도전과 변화 지향)	현재중심(안정과 현행 유지)
개인 자유(성장과 경쟁)	도약성장사회	안정성장사회
공동체 연대(분배와 협력)	도전분배사회	현존분배사회

\* 출처: 박성원,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미래연구원, 2020. 9. 3.

2021년에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주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조사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능력주의(효율성)와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의 가치가 대립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민은 국가성장에서 개인성장, 경제성장에서 환경보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7> 한국사회가 선택한 길과 선택하지 않은 길



— 한국이 선택한 길  
 - - 한국이 선택하지 않은 길

\* 출처: 국회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국회미래연구원, 2021. 12.

이러한 분석과 미래전망을 기초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향후 15년에 걸쳐 지속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지향가치로서, 국가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핵심가치로서 자율과 분권, 다원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 우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2022년에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의 6대 분야별로 2050년까지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관계측면에서는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은 개인들의 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사회, 교육측면에서는 어디서나 계층 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와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는 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lt;그림 8&gt; 6대 분야별 대한민국의 선호미래 모습

분야	대한민국의 선호미래 모습
관계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사회
환경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
	주거 걱정이 없는 사회
교육	어디서나 계층 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는 사회
경제	사람, 기술, 자연이 조화로운 시장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치	역량있는 지방시대
	다양한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국제	역량과 신뢰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 공존 및 공동체 지향

\*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050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전략,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3. 1. 9.

이렇게 6대 분야별 대한민국의 선호미래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미래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좋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5.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안

### 1. 각자 다른 5천만개의 꿈을 꾸는 사회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개인의 자유와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기회가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쏠림사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모두가 단일화된 성공기준만을 추구하는 쏠림사회에서 탈출해서, 다원화된 성공기준을 각자가 자유롭게 추구하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오랫동안 경쟁기반의 쏠림사회를 지향해온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개성사회로의 대전환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착실하게 바꾸어가자.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 각자의 꿈과 개성, 재능을 키워주는 사회를 만들자.

개개인의 각자 다른 개성과 재능,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 나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회의 수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다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5천만명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각자 다른 5천만개의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자.

### 2.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시도

5천만개의 꿈을 꾸는 사회,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토대 위에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시도 한가지를 교육개혁 측면에서 제안한다.

개성사회 촉진을 위해서는 특히 초중고교 학생들의 개성과 꿈,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성적 경쟁에서 이긴 극히 일부 학생만 살아남는 교육이다.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대부분을 패배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이제부터는 교육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된다.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성적만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험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기는 쉽다. 그에 비해 다양성과 개성을 키워주는 것은 어렵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사 수로는 너무 부족하다.

현재의 교사들에 추가해서 두 유형의 코치 그룹을 새로 총원하자. 하나는 학교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학업 코치 그룹이다. 가능하면 대학생과 20대, 30대 청년 중에서 파트타임으로 선발한다. 다른 한 그룹은 학생 개개인의 재

능과 꿈을 발견하고 진로설계를 도와주는 재능코치 그룹이다. 50대 이후의 경험있는 중년층과 고령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얼마나 뽑을지는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고, 충분히 가치있는 시도다.

예를 들어, 한 학교당 학업코치 20명, 재능코치 10명을 뽑아 학업코치에게는 월200만원, 재능코치에게는 월100만원씩 급여를 준다고 하면, 학교당 월 5000만원,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간 600억원으로 100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간 6조원의 예산으로 전국 1만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업코치보다 재능코치를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자리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 연간 6조원으로 사람을 키우는 30만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일자리는 학생들 각자가 가진 재능을 키워주고 뒤쳐진 학업을 도와주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사회적 일자리다. 교육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고 자신만의 재능과 꿈을 찾고 키우게 될 것이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역량있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많은 기회의 제공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쟁 속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기는 어렵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의 제공은 상대적으로 훨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에 초점을 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뒤쳐진 자에게 지금까지 제공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공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와 정책 의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뒤쳐진 자와 낙오자가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구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자유와 기회가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병행하여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선별적 복지와 기회의 제공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 소외계층을 예로 들어보자. 보육원에서 매년 퇴소하는 18세 청소년들이 2500여명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정책지원금과 5년간 지급되는 월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책의 전부다. 이것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이들이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훨씬 더 강화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복지정책을 넘어 이들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다양한 방안들을 창안하자. 예를 들어, 모든 자립준비 청년들이 주거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대학, 기부단체의 지원, 지역커뮤니티의 지원 등 실행가능한 지원책들을 민관이 협력해서 더 강화하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그룹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식별하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책들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자. 그래야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명실상부한 선진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 참고문헌

1. 김현곤,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6.11.
2. 김현곤, 교육혁신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방법도 있다, 매일경제, 2022. 9. 1.
3. 김현곤, 쉰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매일경제 Big Picture, 2022. 6. 15.
4. 김현곤, 5년 국정과제로는 부족, 15년·20년 국가전략 만들어야, 중앙일보, 2022. 5. 9.
5. 국회미래연구원, 2050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전략,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3. 1. 9.
6. 국회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2021. 12.
7. 박성원,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미래연구원, 2020. 9. 3.
8. Lane Kenworthy,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KDI 국제컨퍼런스: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경제, 2021. 10. 7.
9. <https://www.reach.gov.sg/Road/Our-SG-Conversation>

##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예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